

농촌활성화사업 마을주민의 사업참여도와 마을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atisfaction of the Altered Environment in the Development of Rural Agricultural Area

박 경 옥* 이 하 나**
Park, Kyoung-Ok Lee, Han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some ways for the development of rural agricultural area to head. For the purpose, this study analyzed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ject and their satisfaction on the change of villages, in consideration with the type of village and its socio-demographic variables. The 101 residents of the 4 villages in Yeosu-gun, Gyeonggi-do, responded the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The most important objective of the development project, responded residents, was to expand sales channel of agricultural products and find profitable vegetation, and they participated in it with eager. The residents, however, showed passive participation in the cleaning, planting and reforming in village. 2) The satisfaction level with the development project averaged 3.09 of 5 in the natural environment, 3.05 of 5 in the spatial environment, 2.58 of 5 in the economic environment, and 3.13 of 5 in the social environment. In every aspect, centralized villages showed more satisfaction than scattered villages, ages of under 60 were more satisfied than over 60, and over high school graduates answered more satisfied than under middle school graduates.

키워드: 농촌활성화사업, 환경변화, 주민참여도, 주민만족도,

Keywords: Development of Rural Agricultural Area, Altered Environment, Residents' Participation, Residents' Satisfaction

1. 서론

1.1 연구목적 및 필요성

농촌활성화사업은 도농교류를 통한 농촌관광과 주민참여 중심의 마을단위개발로 주민의 소득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이 기존 농촌마을환경정비사업과 차별화되는 점이다. 도시와 농촌의 교류형태는 교류의 활동내용, 참가의 주체, 기획의 주체에 따라 농촌 측에 시설정비가 이루어지며 이런 시설들은 도시로부터의 내방자가 이용하는 것을 1차적 전제로 하므로 지역주민의 생활과 무관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사업 시행 후의 사후 평가를 한 송미령·성주인(2004)¹⁾은 마을개발사업의 주요한 세부아이템들이 마을주민보다 외부인을 겨냥한 시설설치 위주로 이루어져 있어서 주민생활이 편리해졌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보고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사업에 성공한 마을들의 공통적인 성공요인은 사업운영에 있어서 주민들의 의견을 통합시켜 참여를

이끌어낸 것이다.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높다는 것은 사업으로 인한 변화와 이를 통한 생활이 만족스럽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과는 사업의 방향이 농촌 주민들의 요구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사업의 초기단계에는 농촌마을 자원의 개발방법, 주민참여방법의 개발, 도시민의 요구들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사업 시행 후에는 사후평가를 통해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가 일부 이루어지고 있으나 도시민들을 유치하고 방문하기 위한 경관·자원을 개발하여 농촌다운 환경을 만드는 데 주력하는 것이었고 농촌 주민측면에서의 만족도에 관한 연구는 극히 적은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농촌활성화사업이 진행된 이후 마을에 일어난 물리적, 사회적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들의 만족도를 평가하여 앞으로의 농촌활성화사업의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마을유형별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사와 참여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마을유형, 주민의 사회인구학적 변인별 농촌활성화사업에 의한 마을의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파악하여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요인을 알아본다.

* 정희원, 충북대학교 주거환경·소비자학과 교수

** 정희원, (주) 트윈스디자인

- 이 논문은 2008학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1) 송미령, 성주인,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2. 문헌고찰

2.1 농촌활성화사업의 주민참여

김승근(2005)²⁾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을 설정함에 있어 주민들과 전문가 집단, 행정가들이 농촌을 함께 이해하고 배울 수 있는 여건이 선행되어 사업진행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상호보완적인 관계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농촌마을 발전에 가장 중요한 주체는 마을 주민-행정가-전문가의 연계이며, 마을 활성화를 위해 가장 중요한 조건은 마을지도자의 선도와 주민의 적극적 참여이다. 송미령, 성주인(2004)³⁾에 의하면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사업성과는 주민참여수준이 높은 마을일수록 마을개발사업의 성과도 높고,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긍지도 높게 나타나서 주민참여 수준과 사업성과 간에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주민참여도가 사업의 성과와 사업에 대한 만족도를 측정하는 주요요소임을 알 수 있다. 연령, 성별, 마을거주기간, 소득원, 마을에서의 직책 유무 등 주민 개인의 특성에 따라 주민참여의 형식과 수준에 차이를 보이며, 40~50대 남성이면서 마을에 오래 거주하였고 농외활동에 종사하는 이들의 참여지수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농촌체험마을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마을은 사업소득의 기여 저조, 참여가구 미흡, 미비한 체험프로그램이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농촌체험관광마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농촌체험마을의 사후관리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엄대호, 2005)⁴⁾. 그밖에 사업성과에 따른 농촌주민을 만족시키기 위한 개발지침의 마련, 벤처농업·농촌관광 등을 통하여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여 농의 소득을 증가시켜나가는 복합적 접근, 신축공동시설을 평가·조정하는 전문가의 필요, 주민대상의 교육과 마을 이용률을 높이기 위한 체계적인 인적 조직구성도 되어야 한다(정건채, 2006)⁵⁾. 최효승(2005)⁶⁾도 주민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기회의 제공, 마을의 실정을 정확히 파악한 지원과 방문객의 의견을 수렴한 지속적인 점검과 보완, 문제점을 해결해나가는 후속지원시스템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보고하였다.

2.2 농촌활성화사업의 평가

농촌활성화사업의 평가는 다각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

2) 김승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권 3호, 2005, 19~26

3) 송미령, 성주인, 전게서.

4) 엄대호, 농촌체험마을의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 방안 연구 -'02~'04년도 지원된 사업을 중심으로-, 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5

5) 정건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8권, 1호, 2006, pp.90~100

6) 최효승, 농촌마을만들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2005, pp.39~50

고 있다. 엄대호(2005)⁷⁾는 농촌체험마을 성과평가 모델을 내부프로세스 관점, 마을주민 관점, 방문객 관점의 3가지 관점으로 세분화하여 측정지표를 구성하였다. 이 중 마을주민 관점은 사회·문화분야, 경제분야, 그리고 환경분야로 구성하였다. 사회·문화분야는 마을주민과 관광객과의 관계, 마을주민 간 관계, 마을 전체에 대한 관점, 그리고 마을주민과 행정기관에 대한 관계로 구성하였고, 경제분야는 체험마을 조성으로 마을 전체의 경제적 향상 효과 및 개별주민의 관점에서 실질소득 증가로 구성하였으며, 환경분야는 체험마을 조성으로 주거환경, 교통수단, 상수원, 복지시설의 개선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송미령·성주인(2004)⁸⁾은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마을지도자 및 일반주민을 대상으로 마을개발 사업에 대한 자체 평가, 사업추진 단계별 주민참여 실태, 마을개발사업과 주민참여에 대한 인식, 사업의 추진 단계별 참여방식, 사업 후 나타난 변화(마을/개인)와 만족도로 평가하였다. 마을개발사업의 성과는 경제적 측면과 환경적 측면, 사회적 측면의 세 가지로 나누어 평가하였다.

山下仁·林賢一·鎌田元弘·宮澤鐵藏(2001)⁹⁾은 농촌주민 측에서의 도농교류에 따른 생활환경의 변화를 자연적 생활환경, 공간적 생활환경, 경제적 생활환경, 사회적 생활환경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선행연구를 토대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농촌활성화사업의 평가를 주민관점에서 알아보기 위하여 (1) 사업에 대한 주민의사와 참여정도, (2) 환경변화의 4측면인 자연환경, 공간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만족도로 설정하였다.

3. 연구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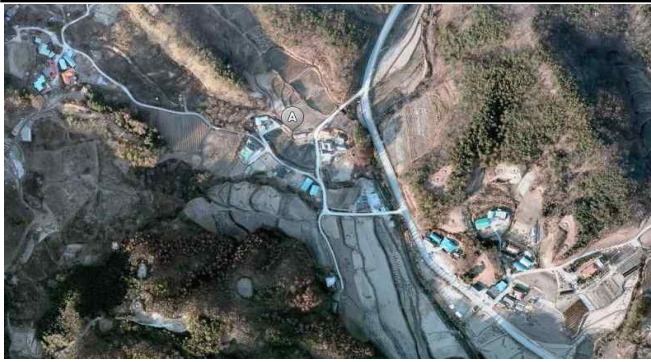
3.1 조사대상

조사대상은 농촌활성화사업이 시행된 경기도 여주군에 있는 마을 4곳을 선정하여 해당마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였다. 마을의 지형과 주택분산정도에 따라 분산형마을(해바라기마을·도토리마을)과 집중형마을(윗범실마을·사슴마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사진 1 참조). 해바라기마을과 도토리마을은 여주군의 동남부에 위치한다. 해바라기마을은 4개의 자연부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마을 대부분이 산간지역으로 평야가 없고 다랭이논에서 수도작을 한다. 도토리마을은 3개의 반으로 분리되어 나누어져 있으며 남한강을 끼고 있어 농업을 하고 있다. 이 두 마을은 가구가 3~4개의 반으로 분리되어 도로를 따라 넓게 퍼져 있어

7) 엄대호, 상게서

8) 송미령, 성주인, 전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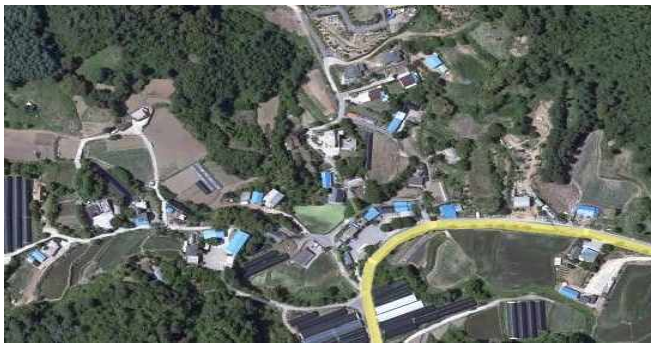
9) 山下仁·林賢一·鎌田元弘·宮澤鐵藏, 中山間市町村における都市・農村交流の生活環境への影響-都市・農村交流における生活環境整備に関する研究その2, 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544號, 2001, pp.179~184



강천면 부평2리 해바라기마을



강천면 가야1리 도토리마을



금사면 상호리 윗범실마을



금사면 주록리 사슴마을

사진 1. 조사대상 4개 마을의 항공사진

분산형 마을로 분류하였다. 윗범실마을과 사슴마을은 여주군 서북부에 있으며 마을 총면적 중 85%이상이 산림인 전형적인 산촌마을이어서 경지율이 낮고 가구가 접근성이 좋게 밀집해 있어서 집중형마을로 분류하였다. 마을의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이장에게 면접조사하였다.

예비조사는 2007년 7월 16일, 17일에 6가구를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설문지의 각 문항을 수정, 보완하였다. 본 조사는 2007년 7월 20일~ 8월 12일에 실시하였고, 101명 주민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면접조사를 하였다(표 1 참조).

표 1. 조사대상

구분	면	리	마을 명	가구	인구	경지율	임야율	총면적 (ha)	조사 대상
분산형 마을	강천	부평2리	해바라기마을	78	197	8.9*	76.6*	141.94*	22
		가야1리	도토리마을	65	171	34.8*	40.4*	45.2*	26
집중형 마을	금사	상호리	윗범실마을	40	60	8.9	85.2	32.62	24
		주록리	사슴마을	69	136	8.6	86.3	62.75	29
계				283	646				101

* 여주군청 지적과에서 부평리, 가야리의 경지율, 임야율, 총면적을 1리, 2리 구별없이 리 전체에 대한 통계만 제공하므로 상호리, 주록리와 1:1 비교할 수 없음.

3.2 조사 내용

조사내용은山下仁·林賢一·鎌田元弘·宮澤鐵藏(2001), 송미령·성주인(2004), 엄대호(2005)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가구일반특성,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사 및 참여도,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후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만족도로 구성하였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표 2>와 같다. 마을의 4개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아주 불만족한다 1점부터 아주 만족한다 5점으로 측정하였다.

표 2. 조사내용

설문내용	설문항목
가구일반특성	세대주의 성별, 연령, 학력, 자녀연령, 가족수, 연소득, 마을 거주년수, 주택구조, 거주기간, 주택소유형태, 주택규모, 사업 후 주택개조사항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사 및 참여정도	사업 목표, 사업 찬반, 사업 참여정도, 사업 참여이유, 사업 평가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후 주민만족도	자연환경, 공간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대한 만족도

3.3 분석방법

4개의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문항 중 부정적 질문 문항은 역코딩을 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그 문항에 만족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자료는 SPSS 12.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 F검증, t-test 등으로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분석

4.1 마을별 농촌활성화사업

조사마을 4곳 모두 농림부,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하는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사업이 시행되었다. 2007년 현재는 사업이 마무리 되어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운영해가고 있다. 각 마을의 농촌활성화사업의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조사대상 마을의 농촌활성화사업 내용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해바라기마을	도토리마을	윗범실마을	사슴마을
지원사업	'04 녹색농촌 체험마을(농림부), 정보화마을(행자부), 팜스테이마을(농협)	'04 녹색농촌 마을(농림부), '05 정보화마을(행자부)	'99 팜스테이 마을(농협), '01 녹색농촌 체험마을(농림부), '04 정보화마을(행자부)	'03 녹색농촌 체험마을(농림부), '05 정보화마을(행자부), 팜스테이마을(농협), 산촌종합개발마을(산림부)
사업내용	농촌·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정기적인 자매도시 간의 문화 교류, 숙박시설의 제공, 주민 대상 정보교육	지역상품의 도시 직매·직송, 농촌·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연구소와 자매결연	농촌·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관·기업·학교와 자매결연, 주민 대상 정보 교육	지역상품의 도시 직매·직송, 농촌·농업 체험 프로그램 운영, 숙박시설의 제공, 학교와 자매결연
사업목적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향상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향상	주민이 마을의 장점 개인식, 농촌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통한 소득 향상, 좋은 환경 제공	농촌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으로 소득 향상, 좋은 환경 제공
사업효과	지역의 자원 활용	지역의 특산물 생산증대	지역의 특산물 생산증대	지역관광사업의 활성화
문제점	지역 전체로의 파급효과 부족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불충분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시설과 조직 불충분, 마을 사람들의 인적 부담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시설 불충분
정비된 시설	산책로, 캠프장, 공용숙박시설, 공용 관매시설	캠핑장, 공용숙박시설, 운동시설, 체험학습시설	산책로, 공용판매시설, 체험학습시설, 하천 등의 친수시설, 관광농원, 공용음식점, 공용식당	산책로, 공용숙박시설, 체험학습시설
마을경관	해바라기를 심어 마을 전체의 경관 향상	마을 여러 곳에 팔각정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대화 장소 마련	민박시설과 공동화장실 시설이 설치됨	마을전체의 통일성있는 경관 구성

부평2리 해바라기마을은 계절별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정기적인 자매도시 간의 문화교류와 숙박시설 제공,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가야리 도토리마을은 한 해 500명 정도의 도시민을 숙박하고, 국립 농산물시험연구소와 자매결연을 맺어 정기적인 문화교류를 하고 있다. 상호리 윗범실마을은 계절별 농촌·농업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 외교통상부와 삼성전자, 농협과 일사일촌을 맺고, 유치원·고등학교·대학교 13곳과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정기적인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다. 주록리 사슴마을은 초등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문화 교류가 이루어지고 있고, 지역상품의 도시 직매·직송과 관광객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고 있다.

각 마을은 농촌활성화사업을 통해 긍정적으로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하여 특산품의 생산증대를 통해 일부 소득향상이 이루어졌고,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을 통한 지역관광사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얻었다. 그러나 마을별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지역전체로의 파급효과 부족, 체험프로그램을 위한 시설과 조직 불충분, 마을 사람들의 인적 부담이 컸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4개 마을 모두 도시민과의 교류를 위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인터넷과 전단지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마을 홍보를 하고 있었다. 마을을 찾는 관광객이 많지 않아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마을 주민들 또한 사업을 통한 소득 향상이 크지 않아 농촌활성화사업을 통한 경제적 성과가 낮았다.

4.2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

(1) 사회인구학적 특성

조사대상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4>와 같다. 남·여 비율은 남자가 50.5%와 여자가 49.5%로 비슷하게 나타났다. 연령은 70대 이상이 32.7%로 가장 많았으며, 특히 분산형마을은 70대 이상의 비율이 39.6%, 50대 이하의 비율이 33.3%인데 비해, 집중형마을은 50대 이하의 비율이 37.7%, 60대의 비율이 35.8%의 순으로 분산형마을이 집중형마을에 비해 높은 연령층이 많았다.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 이하가 62.4%로 가장 많았다.

가족수는 2명이 54.5%로 월등히 높았는데, 분산형마을의 가족수는 2명이 60.4%로 가장 높는데 반해 집중형마을의 가족수는 2명이 49.1%, 3명 이상이 39.6%이었다. 가족주기는 축소기가 71.3%로 가장 많았는데, 마을유형별로 분산형마을(75.0%)이 집중형마을(67.9%)보다 축소기에 있는 가구가 많았는데 이는 분산형마을 주민이 높은 연령층에 많기 때문이다.

조사대상의 연소득은 1,000만원 이하가 75.2%로 가장 많았으며, 2,000만원 이상은 10%에 불과하여 소득수준이 낮았다. 소득의 구성은 100%농업소득인 가구가 33.7%로 가장 많았다. 분산형마을에는 100%농업소득인 가구(33.3%)와 비농업소득 50%이상인 가구(31.3%)가 많은데 비해 집

중형마을은 100%농업소득인 가구(34.0%)와 100%비농업소득(30.2%)인 가구가 많았다(표 5 참조).

표 4. 조사대상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빈도(%)

구 분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전 체	
성 별	남	23(47.9)	28(52.8)	51(50.5)
	여	25(52.1)	25(47.2)	50(49.5)
	계	48(100.0)	53(100.0)	101(100.0)
연 령	50대이하	16(33.3)	20(37.7)	36(35.6)
	60대	13(27.1)	19(35.8)	32(31.7)
	70대이상	19(39.6)	14(26.4)	33(32.7)
	계	48(100.0)	53(100.0)	101(100.0)
학 력	초졸	31(64.6)	32(60.4)	63(62.4)
	중졸	10(20.8)	11(20.8)	21(20.8)
	고졸 이상	7(14.6)	10(18.9)	17(16.8)
	계	48(100.0)	53(100.0)	101(100.0)
가족수	1명	8(16.7)	6(11.3)	14(13.9)
	2명	29(60.4)	26(49.1)	55(54.5)
	3명 이상	11(22.9)	21(39.6)	32(31.7)
	계	48(100.0)	53(100.0)	101(100.0)
가족 주기	자녀성인기 이하	12(25.0)	17(32.1)	29(28.8)
	축소기	36(75.0)	36(67.9)	72(71.3)
	계	48(100.0)	53(100.0)	101(100.0)

표 5. 연소득과 소득구성 빈도(%)

구 분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전 체	
연 소득	1,000만원 미만	34(70.8)	42(79.2)	76(75.2)
	1,000~2,000만원 미만	9(18.8)	6(11.3)	15(14.9)
	2,000~3,000만원 미만	2(4.2)	3(5.7)	5(5.0)
	3,000~4,000만원 미만	1(2.1)	1(1.9)	2(2.0)
	5,000만원 이상	2(4.2)	1(1.9)	3(3.0)
	계	48(100.0)	53(100.0)	101(100.0)
소득 구성	100% 농업소득	16(33.3)	18(34.0)	34(33.7)
	농업소득 50% 이상, 기타 비농업소득	9(18.8)	5(9.4)	14(13.9)
	비농업소득 50% 이상, 기타 농업소득	15(31.3)	14(26.4)	29(28.7)
	100% 비농업소득	8(16.7)	16(30.2)	24(23.8)
	계	48(100.0)	53(100.0)	101(100.0)

(2) 마을 거주년수

조사대상의 마을 거주년수는 20년 이상이 많아서 전체 80.2%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0년 미만의 거주는 전체 6%에 불과하였다(표 6 참조).

표 6. 마을 거주년수 빈도(%)

구분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전 체
5-10년 미만	2(4.2)	4(7.5)	6(5.9)
10-15년 미만	3(6.3)	3(5.7)	6(5.9)
15-20년 미만	1(2.1)	7(13.2)	8(7.9)
20년 이상	42(87.5)	39(73.6)	81(80.2)
합 계	48(100.0)	53(100.0)	101(100.0)

4.3 농촌활성화사업의 참여도

(1)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사

조사대상자가 농촌활성화사업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

하는 목표는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를 42.6%였다. 마을유형별로 목표순위에 차이가 있었는데 분산형마을은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50.0%), '마을의 도로나 주택, 상하수도 등 낡고 안 좋은 시설을 개선한다.'(22.9%)는 순이었으며, 집중형마을은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소득작목을 개발한다.'(35.8%), '마을의 자연 풍경과 농촌다운 모습을 잘 살려서 아름답게 가꾼다.'(28.3%) 순이었다(표 7 참조).

조사대상자의 농촌활성화사업의 주민참여 정도에 대한 생각은 두 마을 유형에서 동일한 순서였으며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가 가장 높아서 전체 57.4%였다. 두 번째로는 '일 진행이 느리고 사업효과는 크지 않지만 마을 일이니까 주민들이 함께해야 한다.'가 23.8%로 대부분 주민들의 참여가 사업에 주요하다는 생각은 두 마을 유형에 차이가 없었다(표 8 참조).

표 7. 농촌활성화사업의 목표에 대한 주민의사 빈도(%)

내용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전 체
마을의 도로나 주택, 상하수도 등 낡고 안 좋은 시설을 개선한다.	11(22.9)	10(18.9)	21(20.8)
마을의 자연 풍경과 농촌다운 모습을 잘 살려서 아름답게 가꾼다.	7(14.6)	15(28.3)	22(21.8)
농산물의 판로를 개척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을 개발한다.	24(50.0)	19(35.8)	43(42.6)
도시민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숙박시설, 체험장, 음식점을 조성한다.	4(8.3)	7(13.2)	11(10.9)
기 타	2(4.17)	2(3.8)	4(4.0)
계	48(100.0)	53(100.0)	101(100.0)

표 8. 농촌활성화사업의 참여 정도에 대한 주민의사 빈도(%)

내용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전 체
마을개발사업을 해서 실제로 이익을 얻게 될 사람들이 앞장서서 사업을 하면 된다.	3(6.3)	1(1.9)	4(4.0)
주민들이 참여하면 일 진행이 느리니까 마을 대표 몇 명의 주도로 하는 것이 낫다.	8(16.7)	6(11.3)	14(13.9)
일 진행이 느리고 사업 효과는 크지 않지만 마을 일이니까 주민들이 함께 해야 한다.	11(22.9)	13(24.5)	24(23.8)
대부분의 주민들이 참여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가장 사업 효과를 높일 수 있다.	25(52.1)	33(62.3)	58(57.4)
기 타	1(2.1)	-	1(1.0)
계	48(100.0)	53(100.0)	101(100.0)

주민의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전 찬반의견은 찬성했다는 의견이 70.3%로 가장 많았으며, 반반이었다는 의견이 29.7%였으며 마을유형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표 9 참조).

표 9.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전 주민찬반의사 빈도(%)

구분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전체
찬성했다	34(70.8)	37(69.8)	71(70.3)
반대했다	-	-	-
반반이었다	14(29.2)	16(30.2)	30(29.7)
합계	48(100.0)	53(100.0)	101(100.0)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후 주민의사는 마을유형별로 차이가 있어서 분산형마을은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가 50.0%로 가장 높은 반면 집중형마을은 '사업을 벌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는 문항이 66.0%로 가장 높아서 집중형 마을이 사업시행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높았다(표 10 참조).

표 10.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후 주민의사 빈도(%)

내용	분산형마을	집중형마을	전체
사업을 벌이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18(37.5)	35(66.0)	53(52.5)
사업을 하지 않는 편이 나왔다.	6(12.5)	-	6(5.9)
사업을 하나 안 하나 별 차이가 없었을 것이다.	24(50.0)	18(34.0)	42(41.6)
계	48(100.0)	53(100.0)	101(100.0)

(2) 참여정도

농촌활성화사업 진행단계에서의 참여방법은 '마을 가꾸기에 직접 나섰다(청소, 나무나 꽃 심기 등)'가 전체적으로 37.5%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는 '계획을 세울 때 마을에 얽힌 역사나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가 22.8%였다. 기타의견으로는 '참여하지 않았다'(2.9%)와 '농촌활성화사업을 위한 교육에 참여하였다'(18.4%)는 의견이 있었다. 그밖에 '사업에 필요한 토지제공' 마을에 필요

표 11. 농촌활성화사업 진행 단계에서의 주민참여방법

빈도(%), N=101

내용	분산형마을 N=48	집중형마을 N=53	전체
계획을 세울 때 마을에 얽힌 역사나 자원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했다.	18(26.5)	13(19.1)	31(22.8)
마을 가꾸기에 직접 나섰다.(청소, 나무나 꽃 심기 등)	21(30.9)	30(44.1)	51(37.5)
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제공했다.(유상/무상/토지의 교환 등)	2(2.9)	7(10.3)	9(6.6)
마을 조정에 필요한 자원을 기증했다.(나무, 돌, 오래된 농기구 등)	6(8.8)	3(4.4)	9(6.6)
내가 사는 주택의 지붕이나 담장, 마당 등을 가꾸고 개량했다.	1(1.5)	-	1(0.7)
건물을 지을 때 노동력을 제공했다.(보수/무보수)	3(4.4)	2(2.9)	5(3.7)
공사 과정을 감독하고 내 의견을 제시했다.	-	1(1.5)	1(0.7)
기타	17(25.0)	12(17.6)	29(21.3)
계	68(100.0)	68(100.0)	136(100.0)

한 자원기증'이 각각 6.6%, 노동력제공이 3.7%, 주택의 개량이 0.7%였다. 마을유형별로 집중형마을이 물리적 자원이나 노동력제공비율이 분산형마을보다 높았다(표 11 참조).

조사대상자가 농촌활성화사업과 관련하여 현재 하고 있는 일은 '마을행사 때 음식 장만, 청소 등에 일손을 거른다.'가 전체 23.6%로 가장 많았으며, '마을 공동 시설 관리에 참여한다.' 19.7%, '사업추진을 위한 주민조직의 운영에 참가한다.' 18.8% 등의 순이었다. 마을유형별로는 집중형마을이 분산형마을보다 시설운영, 물품판매 등의 경제적 활동 비율이 높았다(표 12 참조).

표 12. 농촌활성화사업 관련 현재 하는 일

빈도(%), N=101

내용	분산형마을 N=48	집중형마을 N=53	전체
민박이나 숙박시설을 운영한다.	3(3.2)	9(8.0)	12(5.8)
방문객에게 음식을 만들어서 판매한다.	6(6.3)	7(6.2)	13(6.3)
마을 공동시설 관리에 참여한다.	18(18.9)	23(20.4)	41(19.7)
방문객에서 내가 재배한 농산물을 판매한다.	11(11.6)	23(20.4)	34(16.3)
도시민들이 농사 체험을 하도록 체험농장을 운영한다.	5(5.3)	9(8.0)	14(6.7)
마을행사 때 음식 장만, 청소 등에 일손을 거른다.	24(25.3)	25(22.1)	49(23.6)
마을의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을 돕는다.	4(4.2)	1(0.9)	5(2.4)
사업 추진을 위한 주민조직의 운영에 참가한다.	23(24.2)	16(14.2)	39(18.8)
마을 회의에 참석하였다.	1(1.1)	-	1(0.5)
계	95(100.0)	113(100.0)	208(100.0)

4.4 농촌활성화사업 시행후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만족도

(1) 마을유형별 환경변화에 대한 주민만족도

① 자연환경 만족도

주민의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09로 평균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었다. '개발이 진행되어 동식물이 줄었다.(역코딩)' 항목이 3.83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동식물이 보전되었다' 3.81, '빈 강통 등 농지가 황폐해졌다.(역코딩)' 3.72 순으로 만족도가 높아서 농촌활성화사업이 동식물 보전, 환경보전에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표 13 참조).

분산형마을과 집중형마을 간 전체 자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경관이 보전되었다.', '별장 등이 지어져 경관질서가 흐트러졌다.'의 항목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었다. '경관이 보전되었다.' 항목은 분산형마을(M=3.00)이 집중형 마을(M=2.64)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5). 이는 해바라기마을은 사업이 시행되면서 해

바라기를 심는 등의 마을경관을 가꾸는 행위가 이루어졌고, 도토리마을은 팔각정 및 숙박시설 등 마을경관에 어울리는 시설을 조성한 점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별장 등이 지어져 경관질서가 흐트러졌다.(역코딩)'의 만족도는 분산형마을(M=2.92)에 비해 집중형(M=2.38) 마을이 낮아서(p<.01) 불만족하였다(표 13 참조).

표 13. 마을유형별 자연환경 만족도 M(SD)

내용	분산형 마을 N=48	집중형 마을 N=53	전체	t 값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자연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2.63(.914)	2.55(.932)	2.58(.919)	.006
빈 강통 등 농지가 황폐해졌다.	3.60(.707)	3.83(.580)	3.72(.650)	5.890
농원 등으로 불경작지가 줄었다.	2.35(.668)	2.17(.612)	2.26(.643)	2.811
차와 사람들 때문에 산림과 수변이 망가졌다.	3.44(.769)	3.58(.663)	3.51(.716)	2.045
벌초 등으로 산림이 정비되었다.	2.50(.744)	2.49(.912)	2.50(.832)	1.790
쓰레기와 오수로 하천과 호수가 더러워졌다.	3.50(.772)	3.58(.570)	3.54(.671)	5.681
하천이 정비되었다.	2.33(.663)	2.30(.638)	2.32(.647)	.189
배기가스 등으로 공기가 더러워졌다.	3.54(.713)	3.57(.747)	3.55(.728)	.001
개발이 진행되어 동식물이 줄었다.	3.77(.555)	3.89(.467)	3.83(.511)	4.571
동식물이 보전되었다.	3.69(.719)	3.92(.432)	3.81(.595)	5.074
경관이 보전되었다.	3.00(.744)	2.64(.834)	2.81(.809)	5.953*
별장 등이 지어져 경관 질서가 흐트러졌다.	2.92(.871)	2.38(.627)	2.63(.797)	.674**
계	3.11(.328)	3.08(.294)	3.09(.310)	.188

**p<.01, *p<.05

② 공간환경 만족도

주민의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3.05로 평균 3점보다 약간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가 줄었다.(역코딩)' 항목이 3.90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경관을 파괴한 시설이 늘었다.(역코딩)' 3.82, '불법주차 등의 자동차 마찰문제가 늘었다.(역코딩)' 3.68 순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표 14 참조).

분산형마을과 집중형마을 간 전체 공간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마을유형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인 항목은 '여러 가지 공동시설이 개선되어 생활이 편리해졌다'는 항목에서 집중형마을(M=3.28)이 분산형마을(M=2.69)보다 만족하였다(p<.01). '도로에 교통량이 늘어 위험해졌다.(역코딩)'의 만족도는 분산형마을(M=3.15)이 집중형마을(M=3.55)보다 낮았는데(p<.05) 이는 해바라기마을 근처에 있는 골프장을 찾는 사람들로 인해 마을 내 교통량이 늘어난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여진다. '집을 새로 짓고 고치는 각종 개발로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에서 분산형마을(M=3.04)이 집중형마을(M=2.47)보다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는데(p<.01), 농촌활성화사업 이후 분산형마을의 주

택개조 횟수가 많은 것과 관련이 있다. 또 '조성한 시설들이 마을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마을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농촌답지 않다.'라는 항목에서 분산형마을이 집중형마을과 p<.05 수준에서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집중형마을의 만족도가 높았다(표 14 참조).

표 14. 마을유형별 공간환경 만족도 M(SD)

내용	분산형 마을 N=48	집중형 마을 N=53	전체	t 값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도로·시설이 변하지 않았다.	2.38(.815)	2.47(.912)	2.43(.864)	1.830
도로정비가 진행되어 편리해졌다.	2.50(.715)	2.32(.701)	2.41(.710)	1.317
열차나 버스가 증가하여 편리해졌다.	2.13(.489)	2.28(.601)	2.21(.553)	3.488
상하수도 정비가 진전되었다.	2.29(.798)	2.36(.736)	2.33(.763)	.070
환경에 대한 미화意識이 높아졌다	3.21(.798)	2.91(.861)	3.05(.841)	1.020
점포가 늘어 물품이 풍부해졌다.	2.44(.741)	2.36(.623)	2.40(.679)	2.247
여러 가지 공동시설이 개선되어 생활이 편리해졌다	2.69(.776)	3.23(.800)	2.97(.830)	.148**
도로에 교통량이 늘어 위험해졌다.	3.15(.922)	3.55(.637)	3.36(.807)	5.762*
불법주차 등의 자동차 마찰문제가 늘었다	3.65(.729)	3.72(.690)	3.68(.706)	.815
경관을 파괴한 시설이 늘었다.	3.71(.771)	3.92(.331)	3.82(.590)	25.839
일상생활에 필요한 점포가 줄었다.	3.92(.347)	3.89(.375)	3.90(.361)	.561
마을의 모습이 깨끗해지고 아름답게 변했다.	3.13(.890)	3.36(.811)	3.25(.853)	.654
집을 새로 짓고 고치는 각종 개발로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되었다.	3.04(.922)	2.47(.723)	2.74(.868)	2.526**
조성한 시설들이 마을 모습과 어울리지 않는다.	3.44(.741)	3.75(.585)	3.60(.679)	9.220*
마을에 숙박시설과 음식점이 너무 많이 늘어나서 농촌답지 않다.	3.38(.959)	3.72(.690)	3.55(.842)	10.527*
계	3.00(.242)	3.09(.241)	3.05(.244)	.044

***p<.001, **p<.01, *p<.05

③ 경제적 환경 만족도

주민의 경제적 환경 만족도는 전체 2.58로 4개 만족도 중 가장 낮은 수준으로 평균 3점보다 낮아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후 주민들이 느끼는 경제적 성과는 불만족하였다. '대형점의 진출로 향토 상점이 축소되었다.(역코딩)' 항목이 3.86으로 만족도가 가장 높아 향토상점이 잘 유지되고 있었으며 그 외의 항목에는 불만족하였다.

분산형마을과 집중형마을 간 전체 경제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차이가 없었으며, 마을유형에 따른 유의한 차이

를 보이는 항목은 ‘마을개발사업의 이익이 몇몇 주민들에게만 돌아간다.’이며 집중형마을(M=3.08)이 분산형마을(M=2.60)보다 만족도가 높아서(p<.01) 주민들에게 사업이익이 배분된 것에 만족하였다(표 15 참조).

표 15. 마을유형별 경제적 환경 만족도 M(SD)

내용	분산형마을 N=48	집중형마을 N=53	전 체	t 값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경제적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2.33(.808)	2.34(.618)	2.34(.711)	2.721
특산물상품과 음식 등으로 상점이 활기가 생겼다.	2.63(.672)	2.60(.660)	2.61(.663)	.013
지역에서의 고용장소가 늘었다.	2.38(.815)	2.28(.662)	2.33(.736)	2.959
마을의 땅값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	2.77(.831)	3.00(.734)	2.89(.786)	4.176
점포간 경쟁으로 물가가 내렸다.	2.04(.410)	2.11(.375)	2.08(.392)	.287
손님의 증가로 물가가 올랐다.	2.04(.410)	2.13(.394)	2.09(.402)	.929
대형점의 진출로 향토상점이 축소되었다.	3.81(.607)	3.91(.405)	3.86(.510)	7.565
신상품의 개발로 매출이 올랐다.	2.13(.531)	2.11(.423)	2.12(.475)	1.576
마을개발사업의 이익이 몇몇 주민들에게만 돌아간다.	2.60(.818)	3.08(.895)	2.85(.888)	.037**
계	2.53(.312)	2.62(.296)	2.58(.306)	.236

**p<.01

④ 사회적 환경 만족도

주민의 사회적 환경 만족도는 전체 3.13으로 4개의 환경변화 만족도 중 가장 높았으며 평균 3점보다 높았다. ‘마을이 유명해지고 외부에 많이 알려졌다.’가 3.74로 가장 높았으며, ‘마을을 찾는 사람이 늘어 일거리만 생기고 번거롭다.(역코딩)’ 3.67,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예전보다 늘어났다.’ 3.65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분산형마을과 집중형마을 간 전체 사회적 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여서 집중형마을(M=3.27)이 분산형마을(M=2.96)보다 만족도가 높았다(p<.001). 집중형마을이 분산형마을보다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해 대부분의 주민이 참여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높고 사업시행 후에도 물리적 자원이나 노동력제공비율이 분산형마을보다 높은 것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마을유형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항목이 4개의 환경변화 만족도 항목 중 가장 많았다. ‘사람들이 늘어나 지역에 활기가 생겼다’,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예전보다 늘어났다.’ ‘도시민과의 교류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생기가 넘친다.’라는 항목에서 집중형마을이 분산형마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이는 집중형마을은 학교·기업과 자매결연에 따른 사업 운영이 많았으며 가구가 모여 있어 이를 위한 마을주민 간 회의가 이웃 간의 유대관계 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된다. ‘마을이 유명해지고 외부에 많이 알려졌다.’ 항목에서도 집중형마을의 만족도(M=3.87)가 분산형마을의 만족도(M=3.60)보다 높았다(p<.05). ‘교류에 참가, 불참가로 마을이 나누어졌다(역코딩).’ 항목에서 집중형마을(M=3.43)이 분산형마을의 만족도(M=2.38)보다 높았으며(p<.001), ‘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졌다.(역코딩)’ 항목에서 집중형 마을(M=3.68)이 분산형마을의 만족도(M=2.79)보다 높았다(p<.001). 분산형마을은 사업 시행 후 사업 운영진들이 마을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은 것이 불만족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표 16 참조).

표 16. 마을유형별 사회적 환경 만족도 M(SD)

내용	분산형 마을 N=48	집중형 마을 N=53	전 체	t 값
사업이 시행되었지만 이웃간의 관계가 변하지 않았다.	3.13(1.024)	2.68(.754)	2.89(.915)	19.013**
사람들이 늘어나 지역에 활기가 생겼다.	3.02(.911)	3.64(.682)	3.35(.854)	2.094***
마을을 찾는 방문객들이 예전보다 늘어났다	3.33(.883)	3.94(.534)	3.65(.780)	26.558***
모르는 사람들이 늘어나 치안이 악화되었다.	3.44(.796)	3.66(.553)	3.55(.685)	5.804
도시민과의 교류에 의해 마을 사람들이 생기가 넘친다.	2.98(.668)	3.47(.639)	3.24(.695)	4.345***
방문자와 주민 간에 문제발생이 늘었다.	3.38(.937)	3.57(.721)	3.48(.832)	7.202
농림어업의 후계자가 늘었다.	2.06(.561)	2.17(.612)	2.12(.588)	.616
각 집의 후계자가 늘었다.	2.10(.627)	2.21(.631)	2.16(.628)	.311
젊은이들이 마을 만들기에 참가하게 되었다.	2.67(1.018)	2.49(.697)	2.57(.864)	10.006
교류에 참가, 불참가로 마을이 나누어졌다.	2.38(.815)	3.43(.747)	2.93(.941)	.037***
주민들이 전보다 마을 일에 관심을 갖고 나선다.	3.04(.771)	3.25(.782)	3.15(.780)	1.005
마을이 유명해지고 외부에 많이 알려졌다	3.60(.610)	3.87(.708)	3.74(.673)	.736*
주민 간 갈등이 생기고 사이가 나빠졌다.	2.79(1.031)	3.68(.644)	3.26(.956)	23.784***
마을을 찾는 사람이 늘어 일거리만 생기고 번거롭다.	3.58(.539)	3.75(.477)	3.67(.512)	6.750
계	2.96(.341)	3.27(.287)	3.13(.349)	2.424**
4개환경 전체	2.90(.177)	3.01(.199)	2.96(.196)	0.15**

***p<.001 , **p<.01 , *p<.05

(2)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

조사대상자의 사회인구학적 변인인 성별, 연령, 학력, 가족주기, 연소득, 마을 거주기간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보았다. 성별에 따라서는 4개 환경변화 만족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연소득은 1,000만원 미만에서 75.2%, 마을거주기간은 25년 이상에 80.2%가 집중되어 있

어서 범주별 분석이 의미가 없으므로 연령, 학력, 가족주기별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서술하였다.

① 연령

연령별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환경(p<.05), 사회적 환경(p<.05), 전체 만족도(p<.01)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50대 이하 주민들의 만족도가 60대 이상 주민들에 비해 높았다. 이는 50대 이하의 주민들은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관여하는 반면 70대 이상 주민들은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인 효과나 이웃관계에 대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표 17 참조).

표 17. 연령별 환경변화 만족도 M(SD)

내용	50대 이하	60대	70대 이상	F 값
자연환경 만족도	3.09(.309)	3.18(.308)	3.00(.296)	2.755
공간환경 만족도	3.08(.207)	3.08(.301)	2.98(.210)	1.849
경제적 환경 만족도	2.67(.335)	2.58(.278)	2.46(.269)	4.012*
사회적 환경 만족도	3.25(.319)	3.06(.386)	3.05(.314)	3.495*
전체 만족도	3.02(.162)	2.98(.232)	2.88(.167)	5.292**

**p<.01 , *p<.05

② 학력

학력별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환경 만족도와 전체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경제적 환경 만족도는 p<.05 수준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며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사업에 참여하여 경제적 효과를 본 주민들 중 학력이 높은 주민들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표 18 참조).

표 18. 학력별 환경변화 만족도 M(SD)

내용	초졸	중졸	고졸 이상	F 값
자연환경 만족도	3.07(.293)	3.12(.370)	3.12(.302)	.774
공간환경 만족도	3.00(.229)	3.13(.250)	3.10(.267)	2.765
경제적 환경 만족도	2.50(.258)	2.67(.327)	2.73(.362)	5.743*
사회적 환경 만족도	3.05(.326)	3.24(.362)	3.26(.358)	3.989
전체만족도	2.91(.177)	3.04(.199)	3.05(.206)	6.626**

**p<.01 , *p<.05

③ 가족주기

가족주기별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는 경제적 환경 만족도와 사회적 환경 만족도(p<.01)에서 자녀성인기 이하인 주민이 축소기인 주민보다 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녀성인기이하의 가족은 축소기가족보다 연령이 적기 때문에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 더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19 참조).

표 19. 가족주기별 환경변화 만족도

M(SD)

내용	자녀성인기 이하	축소기	t 값
자연환경 만족도	3.06(.29)	3.10(.32)	.21
공간환경 만족도	3.04(.24)	3.05(.25)	.84
경제적 환경 만족도	2.68(.32)	2.53(.29)	1.95**
사회적 환경 만족도	3.27(.32)	3.07(.34)	.36**
전체 만족도	3.01(.17)	2.94(.20)	.28

**p<.01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마을 주민들의 의사와 참여정도, 농촌활성화사업에 의한 마을의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를 분석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조사대상 마을의 농촌활성화사업은 시설 및 마을 경관정비와 더불어 마을에 따라 정부기관, 연구소, 기업과 유치원을 비롯한 초·중·고·대학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매년 도시 주민과 정기적인 문화교류 및 농산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기업과 자매결연을 맺은 경우가 주민이 느끼는 교류의 효과가 컸다.

둘째,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주민의사는 두 마을유형 모두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주민모두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사업 시행에 대해서 주민 대부분이 찬성하였다.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후 마을유형 간에 사업시행에 대한 만족도의 차이를 나타냈는데 이는 4개의 환경변화에 대한 만족도가 집중형 마을이 약간 높은 것으로 반영되었다. 농촌활성화사업 진행 단계에서 주민들이 참여한 방법으로는 두 마을유형 모두 청소, 나무나 꽃 심기 등 마을 가꾸기에 직접 나선 것이 가장 많았으며, 현재는 마을행사 때 음식 장만, 청소 등에 일손을 거드는 소극적인 참여를 하고 있었다.

셋째, 농촌활성화사업의 자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연환경 중 경관보전에 대해 분산형 마을이 더 만족하였는데, 이는 분산형마을에서 도로를 따라 마을특화를 위한 경관정비가 이루어지고 별장 등도 경관과 어울리게 건축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공간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정도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분산형마을이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큰 도로를 중심으로 가구가 흩어져 있는 분산형마을 유형 특성상 도로변으로 커다란 식당이 들어서 농촌과 어울리지 않고 교통량이 증가하는 등의 이 유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

경제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평균 이하로 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의 분배에 대해 분산

형마을보다 집중형마을의 만족도가 높아 비교적 집중형 마을유형에서 이익배분이 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사회적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4개의 만족도 중 가장 높았으며, 마을유형 간 차이를 보이는 모든 항목에서 집중형마을이 분산형마을보다 만족도가 높아 집중형 마을이 주민간의 화합이 더욱 잘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사회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환경변화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면, 연령에 따라 경제적, 사회적 환경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50대 이하의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관여하는데 반해 70대 이상의 주민들은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 않아 경제적 환경 만족도, 사회적 환경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보인다.

학력에 따른 환경변화의 전체 만족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는데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주민들이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주민들에 비해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특히 경제적 만족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여 고등 학력을 받은 주민들이 경제적 효과를 본 것으로 보인다.

가족주기에 따른 환경변화의 만족도는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에서 자녀성인기 이하의 가족주기의 주민들이 축소기의 주민들보다 만족하였는데 이것도 역시 성인기 이하의 주민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이를 통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에 대한 농촌활성화사업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촌활성화사업은 녹색농촌체험마을, 정보화마을, 산촌종합개발마을사업 등이 있는데 한 마을이 여러 사업의 중복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그러나 조사 결과 농촌활성화사업의 성과는 다양한 사업의 지원을 받고 있는가의 여부보다는 사업시행 후 농촌마을이 기업·도시민과 자매결연을 통해 체계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가가 중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활성화사업을 하는 마을은 농촌과 기업의 상호 필요성에 의한 자매결연을 통해 도시민과의 교류를 증대시키는 방안이 필요하며 지속적이며 체계적인 협약을 하는 제도를 보완하고 장려해야 한다.

둘째, 농촌활성화사업 시행 이전의 주민들은 사업시행에 찬성하였으나, 이후의 사업 진행에 있어서 노령화 인구를 고려하지 않은 일괄적인 진행으로 농촌에 직접적인 소득 증대효과는 크게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0대 이상의 고령인구가 많은 농촌에서는 이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교육이 필요하며 주말·방학을 이용하여 농촌의 일손을 덜 수 있는 대학생이나 봉사단체와의 교류가 필요하다.

셋째, 경제적 환경 만족도가 낮았으므로 농촌활성화사업이 경제적인 효과를 일으키는 데에는 아직 부족하였다. 따라서 경제적인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프로그램개발과 지속적인 교육적 지원이 필요하다.

넷째, 분산형마을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는 형태로 주민들이 모두 모이기 힘든 특징을 가지고 있었으며, 집중형 마을은 지리적으로 모여 있어, 주민들이 모여 의견을 조율하기에 어려움이 없었고, 이웃 간의 교류가 많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농촌활성화사업에서 마을별 지형적 특징을 고려한 주민 의견수렴과 이웃관계 활성화에 대한 기법을 교육프로그램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1. 김승근,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계획방향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권, 3호, 2005, 19~26
2. 송미령, 성주인, 주민참여형 마을개발사업의 평가와 모형 정립,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004.
3. 엄대호, 농촌체험마을의 사후평가 및 관리체계 방안 연구-'02~'04년도 지원된 사업을 중심으로-,농림부 농업기반공사, 2005
4. 정건채, 녹색농촌 체험마을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8권, 1호, 2006, pp.90~100
5. 최효승, 농촌마을만들기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7권, 1호, 2005, pp.39~50
6. 山下仁·林賢一·鎌田元弘·宮澤鐵藏, 中山間市町村における都市・農村交流の生活環境への影響-都市・農村交流における生活環境整備に關する研究その2,日本建築學會計劃系論文集, 544號, 2001, pp.179~184

(接受 : 2009.01.11)